

삿포로 국제예술제 2014

안녕하세요. 삿포로시에서 국제교류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후레리쿠 클레어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7/19 부터 개최되는 「삿포로 국제예술제 2014」와 「창조도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교류원으로서 삿포로시에 소속되기 전부터, 삿포로가 창조도시라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했던 곳은 도쿄였지만, 친구들과 긴 겨울 방학동안 모험을 찾던 중, 「유명한 삿포로 눈축제는 절대 놓칠 수 없지!」라고 의견이 전원 일치하여 어떤 망설임도 없이 저가항공 티켓을 구입하여 신치토세공항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본 대설상은 뒤쪽부터 다가가 정면으로 돌아서 본 순간, 대규모이며 정밀한 기교가 눈에 들어왔으며, 「인간은 대단해」라는 감동을 느껴 멍하게 입을 벌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삿포로의 첫인상입니다.

국제교류원으로서 삿포로시에 착임하고, 이곳은 창조성으로 넘치는 거리라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사무 노구치의 인생 최고의 웅대한 예술적 설계 프로젝트인 모에레누마공원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보컬로이드 소프트웨어 「하즈네미쿠」가 미국의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의 최근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꾸미거나, 삿포로시립대학 디자인학부 대학원생들에 의한 활동이나 전람회, 저명한 국내외 아티스트의 전시회를 종종 개최하고 있는 「삿포로 예술의 숲」과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살게 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습디만, 삿포로가 창조의 기원이라는 것을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7 월 19 일부터 처음으로 개최되는 「삿포로 국제 예술제 (SIAF) 2014」는 이 거리에 가장 어울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삿포로시는 「창조도시 삿포로」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작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미디어·아트 분야에 가입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개최하는 예술제는 창조도시 삿포로의 상징적인 사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을 테마로 한 「삿포로 국제 예술제 2014」는 삿포로 시내 각처를 스테이지로서 활용합니다. 그중에서 본 페스티벌의 테마와 같은 이름의 전시를 전개하는 두 곳의 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삿포로시 중심부에 있는 오도리공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입니다. 편리한 미술관이므로 저도 몇 번이나 입관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쌍방향적인 전시부터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전시까지 여러 가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우 넓은 시설로 2 층 부분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녹색과 고층 빌딩이 섞여있는 경관이 눈앞에 펼쳐지며, 그 전망 자체가 「도시와 자연」의 전시로 생각했습니다.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에서 자전거로 1 시간 정도 달리면, 조용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삿포로 예술의 숲」의 「도시와 자연」이라는 두 번째 전시 회장에 도착합니다. 삿포로 예술의 숲은 40 헥타르 이상의 넓이이며, 부지 내 곳곳의 나무에 숨어 있는 듯한 미술관이나 크래프트 홀 등의 시설이 있어, 이곳을 산책하면 예술의 세계에서 헤매게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뼈꾸기의 울음소리를 사용한 작품이나 나카야 후지코의 「안개의 조각」 등, 의외의 매체를 활용한 아트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삿포로 국제 예술제 2014」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광대한 부지를 사용할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와 자연」 개최 회장인 삿포로 예술의 숲 미술관 상기의 두 회장 이외에도 삿포로역전도로 지하보행공간이나 이사무 노구치의 모에레누마 공원 등 다른 시내 회장도 많이 있으므로, 7 월에 「삿포로 국제예술제 2014」가 개막하면, 삿포로라는 도시 자체가 예술로 변합니다.

「삿포로 국제예술제 2014」 개막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해외의 무대 예술작품으로 바벨탑 이야기의 유래가 되는 「바벨 BABEL (words)」의 티켓을 벌써 구입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시만의 도시・자연공생을 체험하면서 그 패러독스로부터 태어나는 창조성의 전염에 대하여 느끼고, 자신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좋은 자극이 될 것입니다.

삿포로 국제예술제 2014 홈페이지

<일본어> <http://www.sapporo-internationalartfestival.jp/>

<영어> <http://www.sapporo-internationalartfestival.jp/en/>

문의처: 삿포로시 콜센터

TEL : 011-222-4894